

법정과의 만남, 저마다 빛깔로 꽃피우다

“종이를 정리하다가 수녀님이 아까워 못 쓰고 보내 준 종이를 보고 수녀님이 생각나 되돌립니다..... 올해 스님들이 많이 떠나는데 언젠가는 내 차례도 될 것입니다.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런 생명 현상이기 때문에 경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그날 헛되지 않지 않으면 좋은 삶이 될 것입니다.....”(2003. 12. 26.수류산방에서 法頂합장)

법정스님이 이해인 수녀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두 사람은 종교라는 벽과 남녀라는 성별의 벽을 넘어 도타운 우정을 나눴다. 두 사람의 대화는 법인들에게 적잖은 감동과 반향을 일으켰다.

최근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매개로 한 산문집 ‘가슴이 부르는 만남’이 출간돼 화제다. ‘맑고 향기롭게’ 전 이사였던 변택주씨가 펴낸 이 책은 이해인 수녀, 혜민 스님, 김선우 시인, 이철수 화백 등 18명의 인사들이 법정 스님과 인연을 토대로 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책은 저자가 2010년 10월부터 2년 가까이 주간 ‘현대불교’에 ‘법정 스님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글을 엮은 두 번째 책이다. 초기 연재물을 엮은 ‘법정, 나를 물들이다’(2012년 1월 출간)에 이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단 한사람에게라도 영향을 미쳤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것은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법정은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무소유’를 실천하고 몸소 실천했기 때문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멀리 가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본래의 자아를 잃어버릴 때 탐심이 자란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 어떤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스승과의 만남이 그렇다. 인생을 건너갈 지혜를 스승에게서 얻는다. 요즘으로 하면 멘토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단 한 사람의 멘토가 있다면 그는 진실로 행복한 자다. 변화될 가능성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많은 이들의 스승이자 멘토였다. 전남 광양 청매실농원 대표 홍성리씨도 법정 스님과의 인연은 각별하다. 지금은 매화가 피는 봄이면 사람이 법대처럼 몰려 산이 무너질 지경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 밤이면 시아버지 산소에서 울던 시절이었다.

“산에 매화나무를 심어 도시 사람들 마음 찌꺼기 버리고 갈 수 있는 천국을 만들어 보라”는 스님 말씀에 힘을 얻었다. 그리고 서른일곱 해 한길을 걸어 왔다. 그 곁음이 모여 청매실농원이라는 ‘매화 천국’을 이루었다.

그렇듯 법정 스님은 누군가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등이었다. 현재의 우리는 누군가의 따뜻한 등이 있어 이 자리까지 와있는 것이다. 문득, 지난 2010년 법정 스님이 열반하기 며칠 전에 했던 법문 한 구절이 떠오른다.

“봄날은 간다. 덧없이 지나가고. 노래도 있잖아요. 봄날은 간다. 각자 이 험난한 세월을 참고 견디면서 가꾸어 온 그 씨앗을 이 봄날 활짝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다한 이야기는 새로 돌아오는 꽃과 잎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광출판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슴이 부르는 만남

변택주 지음



인생을 건디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

‘숲의 대화’

정지아 지음

“너는 대체 무슨 맛으로 살았니?”

어느 날 문득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사는 것이 맛으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백 사람이면 백 사람, 천 사람이면 천 사람 각기 다른 맛을 느끼는 게 인생이다.

‘빨치산의 딸’의 작가 정지아가 오랜 침묵을 깨고 소설집 ‘숲의 대화’를 출간했다. 그는 단편 ‘봄날 오후, 파부 셋’에서 그렇게 묻는다. “너는 대체 무슨 맛으로 살았니?”라고.

당연히 이 도발적인 질문은 멋지고 찬란한 인생을 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비루하고 누추해 보이는 이들이 느끼는 인생의 맛에 대한 질문이다. 작



가는 밀바닥 인생을 사는 ‘루저’들, 치매노인, 중증장애인지처럼 더 이상 추락할 게 없는 인생들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던진다.

“살아 있으니 살 것이고 쓰는 재주밖에 없으니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을 살게 하는 쌀 같은 소설을 쓸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소설을 위해, 농부의 정직한 땀방울,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좋겠다”

작가는 사라지는 것, 누추한 것, 아픔을 견디며 사는 것에 무한한 애정의 눈길을 보낸다. 그러면서 존재의 귀함을 일깨우며 나름의 의미를 복원한다. 어느 인간이든 하나의 우주이자 그가 살아온 만큼의 무게가 깃들여 있기에 그렇다. “쌀 같은 소설을 쓰고 싶다”는 작가의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은행나무·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카드로 지은 현대사회, 건드리면 무너진다

‘X이벤트’

존 L. 캐스티 지음

‘2001년 9·11테러’ ‘2008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2년 유로존 위기’.

열거한 사건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발생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는 것과 한 번 터지고 나면 파급효과가 겹겹을 수 없이 확산된다는 점이다.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편리와 안락함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정교화된 시스템은 점차 인간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2012년 ‘대중의 직관’으로 미래 예측 분야에서 큰 이슈를 제기했던 존 캐스티가 이번엔 ‘X이벤트’를 출간



했다. 이번 책에서 그는 기존의 통계적 방식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건들의 발생 가능성을 파고든다. 그는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 카드를 들면서 “현대사회는 카드로 지은 방대한 건축물과 같아서, 살짝만 건드려도 구조 전체가 무너진다”고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식량소진, 핵폭발, 전 세계적 전염병, 물리학적 재난, 글로벌 디스플레이션처럼 지구촌 전체의 파급효과를 갖는 X사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깨운다. 물론 북한의 존재도 그 연장선에서 예측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붕괴되어 주민과 군인들이 휴전선 경계를 넘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의 질문은 한번쯤 깊이 생각하게 한다. 〈번바·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월이 만든 담백한 삶... 풍경...

‘사는 기쁨’

황동규 지음

현대문학상, 이산문학상, 대산문학상, 미당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끊이지 않는 시를 향한 열정을 보여준 황동규 시인의 열다섯 번째 시집 ‘사는 기쁨’. 침침대 중반이란 세월이 만든 담백한 풍경 속에 생의 경이를 발견하는 기쁨을 보여주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시집은 병들고 아픈 몸으로 짧기만 한 가을을 지나며 다 쓰러진 소나무가 상처에서 새싹을 틔우듯, ‘사는 기쁨’에 매여 있는 인생의 황혼을 담담



‘영원은 어디’, ‘어둠과 더 어두운’, ‘가는 곳 불온하다면’ 등의 시편들이 수록돼 있다. “죽어서도 꿈꾸고 싶다”는 시인은 늙은 몸에 대해, 인생의 종점을 눈앞에 둔 처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결코 명랑성과 낙관성을 잃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세종대왕, 경복궁을 거닐다

‘조선의 정체성’

박석희 외 지음



경복궁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세종대왕의 하루하루를 통해 조선의 정체성과 역사를 재구성해내는 역사 스토리텔링서이자 궁궐안내서다. 박석희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교수가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두 제자 최석원, 황금희와 함께 엮었다.

책은 세종의 입장이 되어 경복궁 건물을 산책하듯 거니는 구조로 구성됐다. 기본적인 경복궁의 답사 코스인 근정전까지의 코스는 1장과 2장에서 서술하며, 각 장마다 ‘조선왕조실

록’을 비롯한 풍부한 참고자료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한 장면까지 인용해 다채롭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한글 창제의 고민을 따라 걷기’, ‘세종이 이룬 세계 최초의 업적을 찾아 걷기’ 등 테마에 맞춘 구성에 따라 책을 들고 경복궁을 거닐다 보면 어느새 세종에 대해, 경복궁에 대해, 세종이 경복궁을 통해 구현하려 한 ‘조선의 정체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미디스북스·2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전쟁포화 속에 피어난 인간의 숭고한 희생

‘생존자’

이창래 지음



한국계 미국 작가가 6·25 전쟁의 참상과 이후의 비극적 삶을 그린 소설을 출간해 화제다. 주인공은 세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 현재까지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창래 작가. 예일대와 오리건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월가의 주식분석가로 일했던 그는 지금까지 미국 문단이 수여하는 여러 문학상을 받으며 신인작가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내놓은 ‘생존자’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숭고한 희생과 가치에 초점을 둔다. 소설은 6·25 전쟁 당시 어느 고아원과 35년이 흐른 1986년 미국을 배경으로 전쟁으로 잃은 세 남녀의 비극적

삶과 아픔 그리고 화해를 그린다. 소설의 핵심인 세 인물, 소녀 준과 미군 병사 헨터 그리고 선교사 아네 실빈은 자의와는 상관없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내던져진다. 참혹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견뎌내는 인물들의 생존 열망은

강렬하면서도 눈물겹다.

이 작품은 2010 퍼블리셔스 위클리 올해의 소설, 2011 풀리처상 후보작, 데이턴 평화상에 선정되는 등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힘이 넘치고 깊이 있으며 도덕적 문제로 가득한 작품, 깊은 여운을 남기는 가슴이 터질 듯한 이야기’라고 찬사를 했다. 〈RHK·1만5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간

▲상처를 꽃으로=유안진 시인의 산문집. 낮은 것에 공감하고 실패를 격려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가득하다.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때때로 무의미를 즐겨볼 만하다고, 몇 번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다고, 시간에 쫓겨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하는 메시지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깊이 전해져 온다. 〈문예중앙·1만3000원〉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럴듯한 착각들=이 책은 살면서 이성이 마비되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작동하는 심리학적 기제들을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20여가지의 기발한 실험들을 통해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사회심리학이라는 소재를 카툰과 함께 녹여내 인문의 대중화를 꾀했다. 〈지식재널·1만3000원〉

▲이태백 명시문 선집=시선(詩仙) 이백(李白). 우수한 시인들이 배출돼 시가의 찬란한 꽃을 피운 성당(盛唐) 시기의 천재 시인이다. ‘이태백 명시문 선집’은 전체를 2부로 나눴다. 1부에서는 이백의 낭만주의와 현실주의의 특성을 견비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시가 160수, 2부에서는 이백의 웅대한 포부와 인간적 면모를 이해할 수 있는 산문 5편을 다루고 있다. 작품의 원문과 해설을 소개하기 앞서 이백의 생애와 작품의 서술 배경, 이백 시문에 대한 평가 등을 간략히 소개해 독자들이 더 쉽게 이백의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이정·2만2000원〉



▲풍성한 먹거리 비정한 식탁=현대 먹거리의 세계는 ‘사실’과 ‘사건’이 무작위로 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농장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먹거리가 움직이는 여정을 결정짓는 복잡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물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먹거리와 관련된 전 세계 이슈 40가지를 지도와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잘 그려냈다. 〈낮은산·1만6000원〉

▲슬로라이프의 달인들=‘빠름’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행복’과 ‘풍요’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슬로라이프’ 이야기. 오늘날 우리가 ‘풍요롭다, 선진국이다’라고 자부하는 현실과 기준이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풍요로움으로 인간이 진정 행복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굴레에 지친 현대인에게 일종의 치유와 휴식이 되는 책이다. 〈한울·2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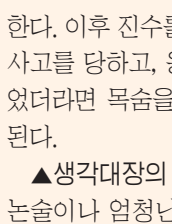
▲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이 책은 조선사편수회가 확립한 식민사관을 지난 100여년간 모든 것을 동원해 사수해온 주류 역사학계의 ‘정설’을 파헤치고, 그 역사적 뿌리와 맥락, 현실과 구조를 명징하게 드러내 논증하기 위해 쓴 식민사학 추적 보고서다. 저자는 역사를 바꾸는 일은 항상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이 땅을 지켜온 민중의 몫이었다고 말하며, 우리가 시도한 발상의 전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역사의아침·1만5000원〉



▲아만다는 책만 좋아해=딸아이를 모델로 한 꼬마토끼 시리즈 작가 모윌럼스의 그림책이다. 친구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귀여운 악어 인형 이야기. 악어 인형은 책만 좋아하는 아만다와 놀고 싶어 짹짹 놀래켜 줄 방법을 찾지만 급세 눈치 빠른 아만다에게 들리고 만다. 친구를 막 인식하게 될 4~6세 아이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살림어린이·1만2000원〉

▲선생님은 나를 사랑해 왜냐하면=마음이 여러 눈물이 많은 고우나, 새 소식이든 한 소식이든 모든 게 뉴스거리인 이르기쟁이 왕이북, 힘이 세서 뭐라도 들어 올리고 보는 힘자랑쟁이 한영웅... 부모가 걱정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의 특성을 일곱 명의 주인공을 통해 보여준다. 〈글로연·1만1000원〉

▲나의 첫 책가방=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시시하고 딱딱한 네모 가방을 받은 아이는 알록달록 예쁜 책가방을 메고 자랑하는 친구들이 부럽기만 하다. 하지만 아이는 시시하고 딱딱



한 네모 가방으로 친구들과 함께 상상놀이를 하며, 때로는 시시하다고 여기던 물건이 알고 보면 근사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책과콩나무·1만1000원〉

▲풍 치운 막대기=강매마를 열두 살 소년들의 우정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단짝이던 진수와 형태. 형태는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던 중 부정행위를 시도했다는 누명을 쓰고 그 때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한다. 이후 진수를 괴롭혀 오던 형태는 어느날 사고를 당하고, 응급실에서 진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세움·1만2000원〉

▲생각대장의 창의력 글쓰기=글쓰기라면 논술이나 엄청난 재능을 떠올리는 엄마들의 두려움을 잡아줄 수 있는 책. 어느누구나 집에서 쉽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엄마표 글쓰기 워크북이다. 책에 나오는 단계별로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지도’도 만들게 되고, 글쓰기 능력도 기를 수 있다. 〈한울림어린이·1만2000원〉

어린이 책꽂이